

87년 노동자대투쟁

가슴 속의 사람들, 함께 어깨 걸 사람들

문성현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

한 해 한해를 보내며 느끼는 변화의 속도는 세상이 과연 변하기는 하는가 할 정도이지만 10년의 세월을 한 묶음으로 돌이켜 보면 과연 세월의 흐름이 무심한 것은 아니다.

조직의 각급 회의와 단위 노조의 행사에 쫓기면서, 교섭권 위임으로 6개에 달하는 공동교섭장을 휘돌아 다니면서 틈틈이 챙겨 본 단상들을 모아 10년 전을 돌이켜 보자니 이 소중한 지면에 값하는 글 한 줄이라도 제대로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걱정만이 앞선다. 필자의 많은 잘못에 대해 항상 너그러웠던 김금수 소장님과 김진균 이사장님, 그리고 10년 세월을 함께 해왔을 독자들의 아량을 믿고 10년전 “그 때”의 시간을 되새겨 본다.

10년 전 그때, 나는 제3차개업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총무경찰서의 유치장에 구속되어 있었다. 85년 통일중공업(당시 동양기계)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있을 때 노동쟁의조정법으로 구속된 이후 거제도 대우조선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 결성을 조종·선동하고 이적 도서로 학습을 했다는 것이 두 번째 구속의 이유였다. 유치장 구금 생활을 아

는 사람은 알겠지만 하루 내내 햇빛 구경 한번 못하면서도 사람 열기로
폭폭 찌는 엄혹한 정역살이에서 내 몸과 마음을 살아 있게 만든 것은
신문을 통해 볼 수 있었던 6월 항쟁의 소식이었다. 6월 항쟁의 열기 덕
분으로 나는 검사의 취조를 일절 거부함으로써 검사로 하여금 유치장
으로 출장 취조를 시키는 오기를 부리고 있었다.

그러던 7월 어느 날 내눈을 번쩍 뜨이게 만든 소식, 그것은 울산에서
의 합성이었고 그 합성의 맨 앞장에 서 있었던 이름 석자, “권용목”이
었다. “아, 기어코 권용목 동지가 큰일을 해냈구나”. 나는 이 투쟁의 흐
름이 결코 울산에서 멈추지 않을 거라는 확신으로 온 몸이 간장되었다.
울산의 권용목은 부산의 “김진숙”으로, 마창의 “여영국”으로, 거제의
“백순환”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전국의 불길로 변질 것이기 때문이
었다. 그리고 민주화 항쟁의 주역인 부산의 “노무현” 변호사님과 거제
의 “김영식” 신부님이 이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눈을 감으면 수많은 얼굴들이 저마다 두 주먹을 움켜쥐고
“이제 때가 왔습니다. 멋지게 판을 벌여 보겠습니다”라고 입술을 악다
무는 모습이 떠올랐다.

글을 이어 가기에 앞서 독자들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전국
의 노동 형제 대중들이 저마다의 현장에서 모두 펼쳐 일어난 대투쟁이
있음에 분명할진대 그때 그 얘기들을 한두 사람과의 인연을 중심으로
살펴 볼 수 없다는 점은 너무도 분명하다. 87년 투쟁이 어찌 한두 사람
만의 투쟁일 것인가? 그러나 87년 대투쟁이 저임금·장시간노동·무
권리상태를 거부하는 노동자 대중의 분노가 응축되어 폭발한데는 그
이전부터 온갖 어려움 속에도 노동자 대중들과 함께 꾸준히 투쟁을 해
왔던, 그리하여 대투쟁을 예비해 왔고 중심에 서 있었던 동지들의 역할
또한 결코 무시할수 없는 것이었다. 이 글에서는 그 동지들과 필자의
이러저러한 인연들을 소개함으로써 87년 이전의 현장 상황들을 조금

그러던 7월 어느 날 내눈을 번쩍 뜨이게 만든 소식, 그것은 울산에서의 합성이었고 그 합성의 편 입장에서 서 있었던 이름 석자, "권용목"이었다. "아, 기어코 권용목 동지가 큰일을 해냈구나". 나는 이 투쟁의 흐름이 결코 울산에서 멈추지 않을 거라는 확신으로 온 몸이 긴장되었다.

이나마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작은 덩치, 큰 배포 - 권용목"

86년도 가을 초입 경이었다고 기억된다. 어느 날 부산의 노무현 변호사와 부산·경남지역의 상담소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울산에서 참석한 노우희선생(당시 현대고등학교에서 해직된 상태, 지금 전교조 울산 지부장)으로부터 뜻밖의 울산 지역 투쟁 소식을 듣게 되었다. 현대엔진의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들이 중식 시간에 몸백보름 등에 붙이고 축구 시합을 했다는 것이었다. 이미 대우조선의 몇몇 동지들과 노조 결성을 위한 소모임을 하고 있던 나는 노선생에게 그들과의 만남을 주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하여 86년 말, 울산의 어느 아파트에서 그와 나는 첫 대면을 하였다. 당시에는 이러한 모임은 모두가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기에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꼬리 자르기를 몇 번이나 시도한 끝에

노선생의 아파트로 안내를 받았다. 현대 중전기의 천창수동지를 비롯한 7~8명의 현대엔진 현장활동가들이 좁은 방안에 벽꼭이 들어앉아 간단



87년 당시의 모습
(백종수 사진집 '민중의 길'에서)

히 서로에 대해 인사를 나누었다. 대(大)현대그룹의 활동가들을 만난다는 흥분과 함께, 끊임없는 대중적 실천을 바탕으로 노동조합 결성을 기본 목표로 잡고 활동을 해 나가자는 얘기들을 나눈 기억이 난다. 그리고 정기적인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제안에 모두들 흔쾌히 동의하였다.

지금 돌이켜 보면 그 자리에 있었던 동지들 중에 천창수동지와 권용목동지가 유달리 기억에 남을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당시에 현대중전기과 현대엔진에서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학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아무진 판단력 때문이었지 싶다. 권용목동지는 이미 현장활동의 일반 원칙이나 향후 활동 방향, 노동조합 결성 시도가 안겨다 줄 엄청난 시련을 감당할 결단(당시로서는 노조 결성이라면 그야말로 삶 전체를 걸어야 할 대결단이었다)을 하고 있었다. 회사 반장이라는 직책에서 확보할 수 있었던 대중적 토대와 독실한 기독교 신앙에서 뒷받침되는 자신감으로 권용목동지는 만나는 첫순간부터 “작은 덩치, 큰 배포”를 가진 큰일꾼으로 나에게 다가왔고 그에 대한 이러한 믿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 이후 한 번의 만남이 더 있는 후, 앞서 말한 대우조선 건으로 수배당하는 신세가 되어 그 임무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징역 속에서 신문을 통해 권용목동지를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것이다. 구형 5년에 실행 6개월의 연도를 받아 그해 연말에 석방되어 마창지역의 동지들에게 인사를 하자마자 울산으로 달려갔으나 권용목동지는 이미 구속이 되어 철창을 사이에 두고 감격의 해후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때 이후 우리는 서로 교대로 징역을 가기로 약속이나 한 것처럼 엇갈려 구속이 되었고 95년에는 함께 수배당하는 신세가 되어 모처럼의 동거인으로 수개월을 함께 지낼 수 있었다. 그 때 권용목동지와 함께 몸을 숨겼던 방주인이 바로 고(故)조수원 열사였으니 함께 짊어진 이 역사의 빛을 어찌할 것인가?

급한 연락이 왔다. 누군지 모르지만 회사 내에 “상고문”이라는 선전물이 뿌려지고 회사가 발각 뒤집어졌다는 것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상고문”을 쓴 사람이 바로 백순환동지였다.

나는 아직도 굳게 믿는다. 노동자 대중과 열사에 대한 빛깔임으로도 권용목동지는 언제든 노동운동의 큰 일꾼으로 함께 할 것임을.

“밤들같이 아무진 사람 - 백순환”

85년 말 겨울, 연말이 다가오는 어느 날 나는 마산에서 거제로 가는 시외버스를 타고 있었다. 통일중공업노조에서의 쟁의조정법위반으로 첫 번째 징역에서 풀려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당시 조선업계의 불황으로 5천여 명이 감원·이전되는 가운데 대우조선 전체가 술렁대던 중 거제성당의 김영식신부로 부터 대우조선 노동자 몇 명을 만나 보라는 연락이 왔다. 마산에서도 늘 보는 바다였지만 이날 버스의 창을 통해 내다 본 통영 앞바다의 풍광은 내 마음속의 설렘을 받아 더욱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옥포를 지나 대우조선의 풀리앗이 거대한 모습을 드러내며 눈 앞에 다가왔다. 창원공단의 그만그만한 공장들을 보아 왔던 내눈에 비친 대우조선은 말 그대로 다윗을 내내다보고 있는 풀리앗의 엄청난 위압 그 자체였다. 과연 이곳에 노동조합의 씨앗을 제대로 뿌리고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 일단 온몸과 정성으로 부딪혀 보는 수밖에.

그리고 86년 한해 동안 한 달에 두 번 꼴로 장승포에 있는 한 동지의 아파트에서 5명의 동지들이 같이 모이게 되었다. 이 모임을 처음부터 같이 했던 동지들 중에 최은석동지(전대우조선 위원장, 대노협위원장)와 장대현동지(전 대우조선 부위원장)가 있었다. 1년여에 걸친 학습과 일상실천이 쌓여 가던 87년 초 어느 날, 이들로부터 급한 연락이 왔다. 누군지 모르지만 회사 내에 “상고문”이라는 선전물이 뿌려지고 회사가 발각 뒤집어졌다는 것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상고문”을 쓴 사람이 바로 백순환동지였다. 당시 우리 모임에서는 노조 결성을 은밀히 준

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지 않아 회사의 직접적인 탄압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급히 노조 결성을 서둘기로 했다. 결국 회사의 엄청난 방해로 노조 결성은 성공하지 못하였고 백순환동지를 포함하여 우리 모임의 다수가 회사측에 의해 강제 교육과 납치 등을 거쳐 해고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나는 백순환 동지를 만나게 되었는데 어떠한 탄압과 회유에도 당차고 아무지게 대처하는 모습이 그야말로 밤불같이 단단한 사람이었다. 87년 초반까지는 그야말로 엄혹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순환동지를 비롯한 대우조선의 해고 동지들은 조합원 대중과 한



부산 고무공장 활동가들을 만나면서 그들로부터 소개를 받고 만나게 되었다.
 “아니 조선소에 뭘 여성 동지가?”
 김동지를 만나기 전에 그녀에 대해 조금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만나는 순간
 나의 첫인상은 여자로서의 당함에 대한 감탄 그것이었다.

걸음이라도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매일 같이 모임아파
 트를 봉쇄한 관리자들의 폭력을 뚫고 선전물을 만들고 이를 배포하였
 다. 바로 이러한 투쟁을 바탕으로 울산에서 시작된 대부평의 피오리바
 람은 단숨에 남해를 가로질러 거제까지 이어질 수 있었으리라.

“비바람 속에 핀 인동초 - 김진숙”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 “김진숙”! 그 이름 석자를 쓰는 지금, 나는
 가슴 저리는 아픔을 감당할수가 없다. 보리출판사에서 펴내는 [작은

책]을 통해 그녀의 피란만장한 삶을 아
 는 독자가 많을 것이므로 시네비스 안내
 양으로부터 조선소 최초의 여성용접공,
 10년이 넘는 해고자생활환경의 수배·구
 속 등에 대해 일일이 말할 필요가 없을
 터이다. 특히 이번 노동법개정투쟁에서
 각종 집회와 조합원 교육에서 피를 토하
 는 듯한 선동연실속에서 노동자로서의
 모든 인고와 의지를 누구보다도 가슴 절
 절히 전파했던 김동지를 기억하는 노동
 자들이 너무나 많을 것이므로.

조선공사(지금의 한진중공업) 노동조
 합 초유의 민주과 대외원으로서 고군분
 무하던 김진숙동지를 나는 86년초 부산
 고무공장 활동가들을 만나면서 그들로
 부터 소개를 받고 만나게 되었다. “아니
 조선소에 뭘 여성 동지가?” 김동지를 만



나기 전에 그녀에 대해 조금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만나는 순간 나의 첫인상은 여자로서의 당참에 대한 감탄 그것이었다. 당시의 엄혹했던 시절 참된 대의원으로서의 활동 하나마저도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마침내 김동지는 해고되어 이후 10년이 넘는 해고자생활로 접어들게 되었고 아직도 한진중공업 복직을 절대절명의 과제로 안고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으며 87년 대투쟁 이후 우리 나라 노동조합 투쟁사에 길이 남을 한진중공업투쟁의 맨 앞장에는 그녀가 서 있었다.

86년 여름부터 통일중공업의 해고자들은 “통일노동자신문”을 발간하여 현장 안팎의 조직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김진숙동지도 “조공노동자신문”을 만들어 일일이 조합원 집을 방문하면서 배포하였다. 거의 혼자이다 싶게 뛰어 다녔던 그녀였지만 언제나 맑고 환한 웃음으로 우리는 만났다. 무엇이 김진숙동지에게 모진 인동의 세월에서 웃음을 안겨 주었으며, 그녀가 선전물을 돌리며 조합원을 만나기 위해 오르내린 영도 그 험한 비탈길에서의 아픔은 지금 그녀에게 무엇으로 남아 있을까? 결혼의 나이를 훨씬 넘겨 버린 지금도 박창수열사추모사업회를 즐기치게 지키면서 이 세상을 노동자의 형형한 눈빛으로 밝혀 내고 류마치스로 못쓰게 되어 버린 허리를 깨끗하게 세워 당당한 발길을 내딛고 있는 김진숙동지! 그녀는 87년 이전 모질었던 투쟁의 한겨 한겨가 마침내 대투쟁의 회오리를 불러일으키고 노동자의 역사를 바꿀 수 있었던 그 신화적 감격 속에 87년 투쟁의 아들 박창수열사를 가슴에 품고 새로운 산별시대의 대투쟁을 예비하고 있으리라 믿는다.

“병역특례 해고 노동자 1호 - 여영국”

1962년생, 민주금속연맹 서부경남지부 조직부장 여영국동지, 그의 85년은 10여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돌이켜 볼 때 그 무엇의 시작이었

경찰과 회사 관리자들이 겹겹이 감시하고 있던 필자의 처(이혜자)에게 제일 먼저 달려와 “형수 걱정하지 마이소, 형님 나올 때까지 내가 노조를 지킬랍니다.”라고 두손을 꼭잡았던 사람이 바로 여영국동지였다.

을까? 부산기계공고를 졸업하고 동양기계에서 병역특례를 받고 있던 여영국동지와 나는 83년부터 한 라인에서 서로 옆기계를 돌리고 있었다. 진업·특근하기를 죽기보다 싫어하고 일 끝나는 대로 친구들과 어울러 막걸리로 특례 세월을 죽이고 있던 사람. 노조 간부를 하고 있던 나에게 “형님 이번 특근 좀 빠지게 해주소”가 인사였던 사람, 아래 위 선후배에게 인사성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확실했던 사람.

필자가 85년 현장에서 연행되고 모든 노조간부들도 연행되어 노동조합이 마비 상태가 되었을 때, 경찰과 회사 관리자들이 겹겹이 감시하고 있던 필자의 처(이혜자)에게 제일 먼저 달려와 “형수 걱정하지 마이소, 형님 나올 때까지 내가 노조를 지킬랍니다.”라고 두손을 꼭잡았던 사람이 바로 여영국동지였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여동지는 결혼질 한번 없이 노조를 올곧게 지킬려는 투쟁의 한길을 걷고 있다.

바로 그해에 여동지는 노조 대의원으로 진출했고 해고당한 선배들과 함께 87년까지 노조민주화투쟁의 한가운데 나섰다. 현장에 유인물을 돌릴 때나 조합원들을 비밀리에 조직해 내는 일에서나 제일 어린 나이에 불구하고 가장 혁혁한 성과를 남겨 선배들로부터 본의 아닌 질시를 받기도 했다. 그해 겨울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양말 장사도 했고 포장마차도 세웠으며 팔다 남은 안주로 노동해방을 약속하는 전배도 술하게 했다.

그리고 86년, 회사와 적당히 임금 교섭을 끝내려는 집행부를 고발하는 선전물을 식당에서 뿌리고 곧바로 구속이 되었다. 해고되면 군대로 끌려가야 하는 특례자로서 과감한 투쟁을 전개하기가 그리 쉬운 일이던가? 그러나 여동지는 2년 징역형을 받음으로써 이 굴레도 훨훨 벗어 버리고 날개 단 듯이 조직사업에 매진할 수 있었으니 여간 다행(?)이 아니었다. 이후 석방된 여동지를 중심으로 꾸려진 학습·실천모임에 진영규(87년 투쟁 이후 통일노조 위원장)동지가 결합하였고 기아기공



다시 하나가 되어 함께 어깨감 날아 올 것이다.

87년 투쟁을 통해 하나였던 우리들이 10년 세월의 흐름과 함께 서 있는 곳은 다르지만 다시 하나가 되어 같이 어깨걸 날이 올 것이라 믿는다.

의 허연도동지, 코리아타코마의 이홍석동지 등이 마산카톨릭여성회관의 상담소를 중심으로 한 울타리를 형성하여 87년 6월에 이미 50여명이 넘는 대군단(?)을 형성하여 공동수련회를 갈 수 있었다.

그러하여 대투쟁기가 왔을 때 마·장의 동지들은 즉각 조직적이고 완강한 투쟁을 전개할 수 있었으니 그 첫출발은 85년에 시작된 여영국동지의 그 용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 한여름 피약벌 아래 한줄기 미미한 바람이 불어도 그것이 무더위를 몰아 내는 비바람인 것을 알고 온몸으로 바람을 안아 내고 마침내 비바람이 몰아치면 빗발 보다 더 억센 외침으로 더위를 몰아내는 옥수수 잎새처럼, 그는 그때 이미 알았던 것일까?

위에 말한 동지들 말고도 노동운동가로서의 내 삶이 다하는 그날 까지 잊지 못할 87년 이전부터의 인연들은 너무나 많다. 87년 마창투쟁의 주역이었던 통일중공업의 허재우, 박성철등 해고자들과 진영규위원장, 이후 마창노련의장을 지낸 코리아 타코마노조의 이홍석, 기아기공의 허연도, 진주 대동공업의 이석행, 거제 대우조선의 최은석, 장대현 동지 등은 87년 투쟁 이전부터 잘알고 지냈던 동지들로서 1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도 각자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고 있음을 생각하면 항상 새로운 활력을 찾게된다.

87년 투쟁을 통해 하나였던 우리들이 10년 세월의 흐름과 함께 서 있는 곳은 다르지만 다시 하나가 되어 같이 어깨걸 날이 올 것이라 믿고 소중했던 인연들을 항상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분투를 바라마지 않는다. ❀